

치 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과 제22교구 본사 대흥사가 주최하고 그리고 불교사회연구소가 주관하는 “서산대제의 국가제향 복원을 위한 학술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서산대사는 1520년 평안도 안주에서 태어나 19세에 지리산에서 부용영관대사의 법문을 듣고 출가하셨으며, 법명은 휴정(休靜)이고 법호를 청허(淸虛)입니다. 승과에 급제하여 선교양종판사가 되셨으나 사문의 본분이 아니라 물리치고 금강산, 두륜산, 묘향산 등에서 후학을 지도하셨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서산대사는 사명대사, 처영대사, 영규대사 등 제자들과 함께 전국의 승려를 규합하여 호국활동을 펼치셨고, 조선 조정에서도 대사의 공훈을 인정하여 사액을 내리고 국가제향을 봉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서산대사에 대한 국가제향의 전통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와 함께 전란이라는 국가의 위기상황뿐 아니라 전란을 겪은 뒤에도 산성 축조와 수비, 사고(史庫) 수호 등 중대한 임무를 맡아 수행했던 승장과 의승군에 대한, 즉 구국제민(救國濟民)이라는 숭고한 정신과 고귀한 희생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평가 역시 미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서산대제의 국가제향 복원을 염원하게 된 것입니다.

서산대사를 비롯한 수많은 승장과 의승군들은 국가와 사회, 역사와 민족에 대한 종교의 책임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역사는 우리 후손들이 세계 역사상 유례없이, 종교인으로서 국가의 위기 앞에서 조직적으로 봉기하신 그 분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평가하며, 추모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은 서산대제의 국가제향화 복원부터입니다. 이와 더불어 “의승군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서산대사 뿐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수많은 승장과 의승군들을 기념하고 그분들의 숭고한 유지를 이어가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우리 종단이 앞장서겠습니다. “서산대제의 국가제향 복원”을 향한, 나아가 “의승

군의 날” 지정을 향한 뜻 깊은 한걸음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 학술세미나를 후원해주신 국회 정각회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전라남도, 해남군 관계자를 비롯한 행정안전부 등 정부 각 부처와 각 지역단체 관계자 분들, 전문 연구자 여러분들, 오늘 이 뜻 깊은 자리에 한마음으로 함께하신 사부대중 여러분들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학술세미나가 과거의 준엄한 역사적 사실에서 교훈을 찾아 우리 종단과 불교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국가와 백성의 안위를 위해 묵묵히 희생하신 수많은 승장과 의승군의 역할을 철저히 재조명하는 등, 호국불교에 관한 연구과제의 해결을 위해 관련 연구자들과 불교사회연구소의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를 당부 드립니다.

호국불교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서산대제의 국가제향 복원”을 위해 노력하시는 대흥사 주지 범각스님과 불교사회연구소 소장이신 중앙종회 부의장 법안스님, 그리고 호국불교 연구를 후원해주신 문화체육관광부와 호국불교와 서산대제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정각회 회장 정갑윤 의원님과 여러 국회의원님들, 박철환 해남군수님, 박희재 군의장님 등 내빈 여러분, 발제와 토론, 사회를 맡아 애써주신 여러 교수님들과 교육부장 스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불기2557(2013)년 6월 2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